

협력과 단결로 원자력 사명 성취

최 수 병

대회장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

준 경하는 채영복 과학기술부 장관님, 그리고 이 대회에 참석하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7회 연차대회를 맞이하여 본인이 주최 기관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대회는 1986년 4월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첫 대회를 개최한 이래 해마다 규모와 내용면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이제는 세계 원자력계의 주목을 받는 국제 대회로 발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연차대회에는 국제 원자력계를 대표하는 각국의 지도자와 석학, 최고 경영자를 비롯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여 이처럼 성황을 이루어 주신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해외에서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루이스 에차베리 경제협력기구 산하 원자력기구 사무총장님, 워너 부카트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님, 파스칼 폴롱바니 프랑스 원자력청 청장님, 게일 마커스 미국원자력학회 회장님, 존 리치 세계원자력협회 사무총장님, 그 밖의 외국 인사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뜻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세계적으로 원자력 산업 발전은 점차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가고 있고 원전의 경쟁력 확보에 대한 기대와

이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등 원자력산업의 부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원자력이 인류 복지 생활의 향상과 경제 성장의 지속을 위하여 필수적인 에너지라는 인식 하에 원자력 에너지가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경쟁력에 있어서도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 문화 정착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원자력 발전 사업은 고리 1호기가 상업 운전을 개시한 이래 국가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그 동안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성숙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1년 말 현재 우리 나라는 총 16기의 원전이 운전되고 있습니다. 설비 용량은 1천3백71만6천kW로 전체 발전 설비의 약 27%, 발전량은 총발전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 이래 연속 8년간 87% 이상의 높은 이용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1년도의 설비이용률은 평균 93.2%로 전년도보다 약 3% 증가하였고, 고장 정지도 호기당 0.5건(총8건)으로, 1994년 이래 평균 1건 미만의 고장 정지율로서 우리 나라의 원자력발전소 운영 능력이 원자력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 자리에 참여하신 국내 원자력계 중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들을 자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자력계가 기일중 협력하고 단결하여 우리에게 부과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모든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부흥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이 기회를 빌어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이며, 또한 원전 도입 초기 이래 협력 업체로 참여하신 외국의 원자력 산업계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국내의 원자력계 종사자 여러분.

오늘날 원자력산업이 국제적 에너지 안보 측면에 큰 기여를 하고 또 기후 변화 협약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새롭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함께 원자력 발전의 입지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확보 등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존재함으로써 그 환경이 그리 순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작년 4월 국내 전력 산업 구조 개편에 따른 발전 부문의 분리는 유연탄 등 타전원과의 경쟁 체제에 돌입하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경쟁력 확보는 이제 우리 원자력계가 풀어야 할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 분야에 비해 그 동안 저조했던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의 촉진과 이용 기술의 개발을 포함하여 원자력 관련 기기의 국산화에도 힘을 기울여 국내의 원자력산업의 고도화를 뒷받침할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원자력 협력 사업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는 그간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기관이 증가하여 2000년 말 현재 방사성 동위원소 인허가 기관이 약 1,700개에 이르며,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도 약 1만 5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방사선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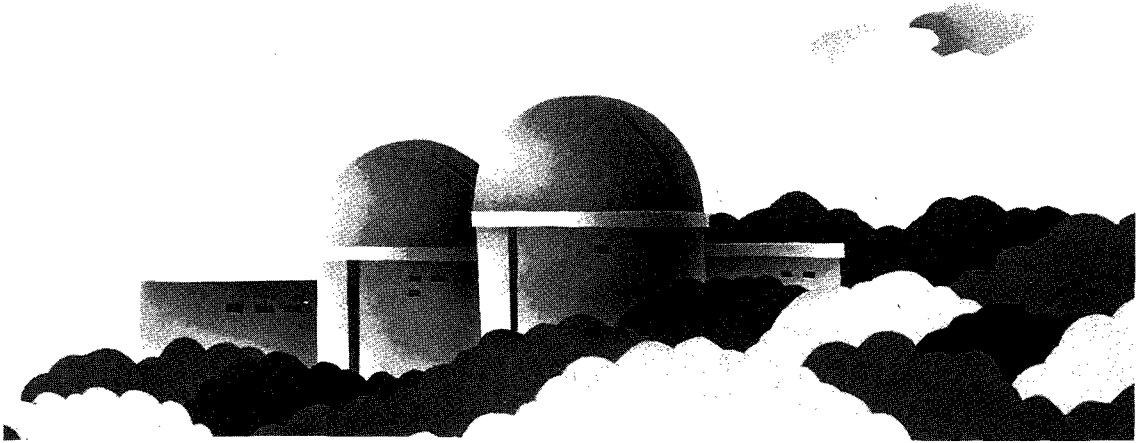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분야 등 비발전 산업의 규모는 원자력 공급 산업 총매출액의 9.1% 정도로 이는 미국의 약 80%, 일본의 약 5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사용중인 방사선 이용 기기 등이 대부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산업화가 활성화된다면 이 분야가 가져올 수 있는 산업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이며 국민 삶의 질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원자력 진흥종합 계획에 따르면 발전 분야와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등 비발전 분야의 균형있는 진흥 정책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 비발전 분야의 매출액을 원자력 공급 산업 총매출액의 30%로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제5차 장기전원개발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현재 건설중인 4기를 포함하여 12기의 신규 원전이 계통 병입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2005년까지 한국 표준형 원전 4기의 건설을 완료하여 총 20기의 원전을 운전함으로써 원전 설비 용량을 1천7백71만6천 kW로 증대시키고, 신고리 1·2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전 건설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0년도에 1,400MW급 신형 경수로 (APR1400)의 상업 운전 등 2015년까지 중·장기적으로 8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여 국내 전력 수요의 약 45%를 담당함으로써 국내 주력 전력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 신형경수로인 APR1400 원전은 앞으로 원전의 전력 공급 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원자로 기술 개발을 일층 고도화시켜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안전 최우선’의 운영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종사자의 ‘안전 의식 생활화’, 그리고 설비에 대한 안전 제고 중심의 투자와 관리 등 종합적인 원자력 안전 문화 정착을 철저히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의 원자력산업 발전이 선진 공여국의 협력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우리 나라도 원자력의 해외 협력과 진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20년 이상의 건설·운영 및 연구 개발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인접 국가에 대해 선진국과 공동 협력 진출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해외 협력을 추진하여 관계국과의 상호 이익 증진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나라의 원자력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과거 수혜국으로서의 국제적 혜택에 보답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3월에는 전세계 원전 운영 전력사 및 공급사의 주요 경영진이 참가한 제7차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총회를 서울에서 성공리에 개최하여 한국의 국제 원자력계에 대한 기여를 제고

하였고 위상을 확립시킨 바 있습니다.

친애하는 세계 원자력계 종사자 여러분.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자력계가 가일층 협력하고 단결하여 우리에게 부과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모든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부흥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2일간 개최되는 제17회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및 원자력학회 연차대회가 공동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원자력산업의 부흥을 이루기 위한 활발한 토의를 통하여 국제간에 상호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 외국에서 오신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체류 기간이지만 우리 나라에서 가장 좋은 계절인 4월 중순의 자연을 만끽하시면서 원자력계 인사간의 교류는 물론, 한국의 문화와 풍물을 이해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준비 위원과 관계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아울러 국내외 참가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